



2022 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사 65:17)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기 원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의 안에 거하라
기 도	최의순 장로
성경봉독	이사야 29장 15-24절
특별찬양	주께 찬양할 때 -찬양대-
설 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박현수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헌금기도/ 축 도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 찬양 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 목사) hellofromhighland.com (EM Web)

◀ 좁은길 가고 있습니까? ▶

이번 PCA 총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것들 중의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계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고, 강단을 떠난 목사들도 많으며,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지만, 어려움 중에서도 새로 개척한 교회들이 많아서 교세가 그리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팬데믹 이후로 교인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수가 약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성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과연 제대로 예배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본다고 하니,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꿈 깨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표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은 '돌아오라'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입니다. -박목-

◀ 광고 ▶

- 담임목사 휴가: 7/1(금)-7/9(토). 7/3예배는 영어권과 함께 드립니다. 설교: 홍아브라함 목사
- 7/8(금): 금요일예배에는 장운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 김국태 집사
- 다음주 기도: 김태중 장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전도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한은정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MTW - 강충만
캠보디아 - Nuth Sydeth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구아 - 정영호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켈런지 교회입니다!